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

"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10).

오늘날 기독교와 크리스천의 최대 위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지만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허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공허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과 육체에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잃고 수모를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마음을 푸십시오.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입니다.

- 하용조